

# 인도그림기행

17 그림·글 이호신

## 孝의 성지에서 만난 천진 여래

### 어린 천사여, 초원의 빛이여 (상카시아 마을 호수와 아이들)



◇초원의 빛(172×136cm).

**사** 실 상카시아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겨준 사람은 오랜지색 승복을 입은 인도소님 몇 분이였다. 입교자 때문인지 모두 털모자를 썼고 매우 반갑다는 표정으로 빛바랜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쓸쓸한 상카시아 성지를 지켜내는 의로운 스님들.

그러나 잠시 후 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달려오더니 마침내는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행편객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일행에게 달려드는 아이들. 그 특유의 큰 눈망울을 굴리며 미지의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순수하다 못해 성스럽다.

인간애의 지고선(至高善인 '효(孝)의 성지(聖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붓다의 '삼계보도(三階寶道)', 그 참뜻을 알거나 할까. 아니 모르면 또 어찌리.

천진(天真)은 성인(聖人)의 품성이요, 여래의 참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본래의 모습을 간직한다는 것은 진리의 거울을 지닌다는 뜻이다. 참사랑은 천진으로부터 나투는 지혜의 행위이다. 따라서 천진한 미소는 흐르는 샘물과도 같이 맑고 순수하다. 그 물은 그윽히 바라보는 이의 마음속으로 흘러든다. 아니 그 크고 맑은 어린 천사의 눈에 나그네가 찍혔다. 마침내 저도 나도 응연(應現)하여 한 마음이 된다.

어린 왕자와 천사들. 그들에 둘러싸여 화점을 펼치니 붓다가 천상에서 물고 온 싱그러운 바람과 지상의 흙내음이 함께 일어난다. 인류의 살붙이로서 오늘 만난 인연이 참으로 소중한 거룩하다. 한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시아부락에서 만났던 쇠뿔마를 아이들의 눈망울, 그리고 그 먼 타국에서 만난 한국교인 2세의 아이들. 그 어린 천사들의 눈빛이 새삼 뜨겁게 마음속에 달아오른다.

무슨 큰 구경거리나 난 것처럼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나를 에워싸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깔깔거린다. 살펴보니 큰 아이가 갓난아이를 업는 모양새는 꼭 박수근 그림('아이업은 소녀')를 닮았다.

어느 분의 시인이 있어버렸지만 박수근의 '아이업은 소녀' 그림을 보고 쓴 시기가 기억난다.

온 종일 아기를 업었다 내려놓으니  
그만 내 작은 허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예전처럼 아마도 저 아이의 부모들은 일터로 나가고, 친얼대는 아기는 저 어린 천

사가 업고서 망연히 들녘을 바라보며 해질녘을 기다리리라. 이처럼 적막하고 심심한 오지 마을에 외지인의 발길은 모처럼 새로운 구경거리요, 무료함을 깨는 놀거리로 마을은 생기에 차오르는 것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린 천사들과 작별하고 돌아보니 일행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마을입구에 세워둔 버스로 이미 떠난 모양이다. 다급한 마음에 화구를 쫓겨 길을 재촉하는데 호숫가 들녘에서 한 소년과 목동이 되어 밀레의 그림처럼 떠 있는게 아닌가.

취박한 토질이 아닌 모처럼의 초원과 아늑한 호수, 그리고 옅은 안개가 잦아든 나무들은 숲을 이루어 환상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호숫가로 달려가자 풀을 뜯고 있는 동물은 다름 아닌 의외의 돼지들이다. 가족을 방목해 키우는 현실속에 가족과 야생의 경계를 허무는 각별한 느낌이다.

소녀는 연소같은 양을 모느라 고삐를 잡고 씨름하는데 나를 보자 매우 당황하며 수줍어한다. 조금 전 왠지 짝 짝 함께 어울려있던 아이들과는 달리 외딴 호수에 홀로 목동이 되어 초

### 형형색색 옷을 입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아이들 외지인은 어린천사들 무료함 달래주는 구경거리

원의 빛에 녹아 떠도는 어린천사. 지평이 넓을 수록 하늘은 끝없이 높아가고 그 천지는 자연스레 호수에 얼굴을 내비친다.

물이 귀한 인도, 아니 물이 성스러운 인도의 삶은 창세기에서부터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태초에 무(無)도 없었고 유(有)도 없었다. 공계(空界)도 없었고 그것을 덮을 하늘도 없었다. 그 무엇이 활동할 수 있었는지? 어디에, 그 누구의 보호아래! 오직 깊고 헤아릴 길이 없는 물은 존재하였다. ('리그베다' 경전에서)

그 깊은 물을 마시며 푸른 빛으로 번져가는 초원. 한가로운 돼지의 팔자가 복되어 보이는 데 한 쌍의 까마귀까지 돼지의 등을 타고 놀아난다. 무릇 공생(共生)의 드라마를 저 풍광보

다 더 아름답게 빛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나무숲은 초원의 바람을 온전히 막아주면서 호수에 살바람을 실어 보낸다. 그 바람의 파문이 햇살을 받아 은물결 되어 잔잔히 번져가는 것을 보노라니 모처럼 나그네의 심회가 한갓이다.

사실 여행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도, 여정속의 깨달음도 삶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한갓져야 하는 것이다. 조용히 풍경속에 점경(點景)되어 무심히 거닐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화첩사생으로 한시 분주한 내게 오늘의 풍경은 긴장속에서 모처럼 해방되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다. 무릇 풍경은 사람의 마음을 때때로 정화시키는가 보다.

이렇듯 한눈을 파느라 주차장 주변에서 이미 함께한 점심시간을 넘겨 끼니는 건너뛰었지만 다행히 일행과의 합류는 무리가 없었다.

흐르는 시간속에서 작가에게 '찰나'와 '영겁'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조금 전 내가 만난 순간의 느낌들을 어떻게 마르지 않는 강물속으로, 그 이야기들을 담아 띄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다만 나의 연인,  
어린천사여!  
초원의 빛이여!  
그 눈빛속에, 바람속에 잠들고  
싶아라.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 윤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 용문사 대장전·윤장대 보수, 목각탱·석탑·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리는 천년고찰입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계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정신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덧 용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용문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극구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호전성 장경자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그리고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 윤장대는 부처님의 훈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1,200년 동안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비로운 가르침을 전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용문사에서는 앞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윤장대 윤전 법회를 봉행하여 온누리에 불법이 두루 퍼져 환없는 복덕이 성취되길 기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03년 10월 4일(음 9.9) 중앙절에 윤장대 윤전 법회 및 대장전·윤장대 보수, 목각탱·석탑·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세월의 무게 만큼이나 퇴락하여 빛이 바래 보수하고 수선하여 새롭게 부처님 위의를 빛내고자 하오니 무뎠음과 허물어짐이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수행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해가 구축하여 확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신도회장 대행 박우식



윤장대(보물 제684호)

• 회 향 : 2003(불기2547)년 10월 4일(음 9월 9일)토요일 • 동참금 : 등(1인1등) 1만원, 영가등 1만원 • 윤장대 윤전할 분 동참금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47028-51-009313, 우체국 702191-01-000252 예금주: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탱 및 목가탱(보물 제989호)

동무전 지장보살·업장대

보물명인 삼존불

경명당

교지(보물 제729호)

자문부(문화재 자료 제1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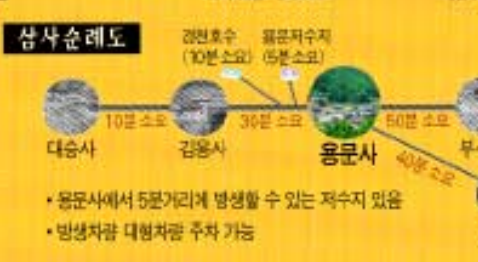
국적보존

경남세일공원

범종사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송송채(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송송채(부산)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예천IC  
 송송채(대구) :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IC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 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 655-8405